

사립대학도서관의 직제 현황에 관한 연구*

金 聖 洙**

〈목 차〉

- | | |
|-----------------|----------------------|
| I. 서 론 | 2. 직선 혁신 도서관의 현황과 분석 |
| 1. 연구의 목적 | III. 결 론 |
| 2. 연구의 방법 | 참고문헌 |
| II. 사립대학도서관의 직제 | Abstract |
| 1. 부관장제 |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근자에 한국의 대학은 정보화사회의 진입과 교육개혁 등으로 말미암아 대학의 기능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화(調和)에 분주하다. 더우기 ‘대학의 심장’이라는 대학도서관은 교육부의 주도 및 정책지원에 의하여 1992년부터 시작된 도서관전산화5개년계획 사업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대학도서관은 폭발하는 학술정보의 통제를 위하여 도서관자동화로 이끌어지는 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또한 자동화된 도서관(automated library)에서는, 종래 수작업 중심의 분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에 개설된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법론>의 학기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업화된 업무처리방식 및 조직구조¹⁾가 자동화네트워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처리방식의 분산화 현상으로 전향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인하여, 자동화된 도서관들에서는 도서관의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의 명칭과 업무내용을 혁신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첨단멀티미디어 및 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전자·디지털(digital)정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부서(과 또는 실)가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겸임제하의 대학도서관장직이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킴으로써,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도서관 업무 전반을 지속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문사서를 부관장 등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사서직 부관장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주목하고, 특히 사립대학도서관의 직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인 측면은 비교적 지양하고, 실제적인 대학도서관

-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모든 대학도서관의 전형적인 조직형태는 전문직 관료제론 기초로 한 계층구조이며, 기능적 분화원칙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도서관의 직제에 관한규정은, 서울대의 경우 1992년 3월 6일에 <대통령령 제 13605호>로 개정공포된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7조(도서관의 조직) 1항에 “도서관에 수서정리과·도서관용과·정보관리과 및 서무과를 두며, 수서정리과장·도서관용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1995년 2월 28일에 <대통령령 14539호>로 개정공포된 국립학교 설치령(1977. 8. 30. 대통령령 8672호 전문개정) 제13조(도서관) 1항에 “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 3. 6, 1993. 2. 24, 1994. 2. 28, 1995. 2. 28)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근자에 도서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위의 설치령과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서(과) 명칭을 유지하며 개편된 부서(과)에 내부적 경직발령의 형태를 취하는 형식의 임시도서관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 현황에 관한 기술에 치중하여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였다.

첫째,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 발간한 1996년도 회원교편람²⁾에 나타난 사립대학교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분석한다.

둘째, 상기 회원교편람에서 미진한 부분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부관장(급)제를 실시하거나 계획중에 있는 대학 그리고 도서관 직제명칭을 변경한 대학 등을 문의하여 선정하였고,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각 도(직할시 포함)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대학 중 각각 1-2개관을 선정하여, 각 도서관의 과장·부관장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서와 실무사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황 전반에 관한 복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³⁾ 면담·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고정된 설문에 의하여 질문하는 방법은 피하고, 당해 도서관의 현황파악을 위한 대화중 의문점들을 순차적으로 질문함으로써 해당 도서관의 현황과 직제개선의 의향타진을 모색하였다. 그밖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직접방문이 불가능하였던 도서관에 한해서는 해당 실무사서나 열람과장 등에게 전화면접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였다.

II. 사립대학교도서관의 직제

사립대학교도서관 직제의 현황과 분석을 위하여, 먼저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의 회원교편람(1996)에 기술된 63개 사립대학교도서관의 직제 중에서 조직규모·직원수에 관한 현황만을 종합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 2)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청주: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996).
- 3) 직접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건국대, 경남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광운대, 광주대, 단국대, 대전대, 동국대, 동아대, 서강대, 서원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주대, 조선대, 청주대, 포항공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 등의 대학도서관임.

아울러 사립대학교도서관과 상대비교를 위하여, 직제상의 변화물 보였거나 시도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교도서관 중 전남대·부산대 등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참조하였음.

나타나는 전반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도서관의 조직규모를 살펴보면, 부관장급의 직제를 마련한 도서관이 63개 대학 중 27개 도서관에 이르고 있다. 또한 3과 이상으로 부서가 설정된 대학도서관이 32개관에 달한다. 그리고 1995-1996년부터 기존 과의 명칭을 개칭하여 새로운 과의 명칭을 사용하는 8개 대학도서관이 등장하였다.⁴⁾ 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대학도서관의 직제에도 영향을 끼쳐, 방문면담 또는 전화면접 조사결과 사서직 부관장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 다수에 이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밖에 각 과의 명칭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신설 과 및 과의 수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도서관이 의외로 많았다. 게다가 기존의 직제를 변경시켜, 각 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폐지 하면서 주제별 열람실의 기능을 확장함과 동시에 정보봉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이러한 사항들은 작년과 올해 들어 각 사립대학도서관들의 직제와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 직원수에 있어서 ‘봉사대상자수와 장서수 및 자료구입예산’(〈표 4〉 참조)과 연계하여 ‘사서직수’를 대비하여 보면, 관계법령⁶⁾에서 제시하는 최저

4) 동덕여대, 배제대, 이화여대, 전주대, 한남대, 한성대, 한양대, 한양대 안산캠퍼스 등임. 이들 도서관들은 대체적으로 1994-1995년에 각 과의 명칭변경 작업을 검토하고, 1995년부터 한남대와 한양대에서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대학은 올해(1996)부터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5) 계명대, 전주대 도서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6) 1994년 7월 23일 大統領令 제1446호로 제정·공포된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施行令〉 제4조는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舊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1988년 8월 16일에 대통령령 제12506호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면,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며,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전국 사립대학도서관 조직규모 및 직원수 현황¹⁾

대 학	조직규모				직 원 수				
	부 관 장	과	계	실	사 서 직	비사서직		학생보조원	합 계
						전 산 직	기타		
가톨릭대		2	3	5	11		8	62	81
강남대		2			10			7	17
건국대	1	3			29		5	72	106
건국대(충주)	1	1			11		4	35	50
경기대		2			13		3	22	38
경기대(금화)		2			13		3	22	38
경남대	*1	3	5		22	1	6	35	64
경성대		3	7	3	18	1	4	11	34
경원대		3			9		6	27	42
경희대	*1	3	7	5	13		23	25	61
경희대(수원)	1	3	3		17			50	67
계명대	1	2	7	22	27	2	5	13	47
고려대	1	4		1	32	1	17	126	176
고려대(서창)		1			12		1	20	33
관동대		2	5		11		3	3	17
광운대		2	3	4	13		3	32	48
광주대		2	3		9		7	15	31
국민대		2	2	6	13		12	65	90
단국대	*1	3	5	8	22		2	34	58
단국대(울곡)	1	3	5		24		3	29	56
대구대		3	6		23	1	22	12	58
효성가톨릭대		2		7	18		6	14	31
대전대		2	4		10	1	3	14	31
덕성여대	1	2			18	1	3	32	54
동국대	1	2	5		17		11	56	83
동국대(경주)		2	3		12		5	32	49
동덕여대		3			14			50	64
동아대		4			30		13	38	81
동의대		2	3	5	19	1	2	25	44
명지대		3	5		16			13	19
목원대		2	2	4	6		13	19	
배재대		2	4		13		1	26	40

- 7) ① 〈표 1〉에서는 부관장급의 다양한 명칭을 '부관장'이라 통일함.
 ② 부관장 난의 숫자 앞에 기입된 *표는 현재 공석중 임을 나타내는 표시임.
 ③ 계의 표시에서는 회원교편람의 기구표에서 '계'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원도서관인명록〉에서 '계장'의 직급이 명시되었을 때는 계의 수로 계상하였으며, '주임'이 있다하더라도 각 과의 사서수가 소수(少數)일 경우에는 그 계상에서 제외하였음.
 ④ 조직규모 중 각 실(各室) 수의 표시에서는 일반열람실을 계상에서 제외하였음.

6 圖書館學論集 (第24輯)

대 학	조직규모				직원 수				
	부관장	과	계	실	사서직	비사서직		학생보조원	합계
						전산직	기타		
부산여대		2	6		15		1	20	36
부산외국어대		2	3	4	10				10
삼육대		2	3	4	9		2	45	56
삼명대	1	3			7		5	51	63
삼명대(천안)		2			7		4	60	71
서강대	*1	2		7	17		10	140	167
서울여대		2			11	1		1	13
서원대		2	4		9		9	36	54
선문대		2			6		6		12
성결대		1	2		8			14	22
성균관대	*1	2	5		26	1		141	168
성균관대(수원)	1	1	3		17	1		10	28
성신여대	1	2		7	11		4	111	126
세종대	2	2			9		6	22	37
수원대		2			10		5	10	25
숙명여대		2	4		21		4	122	144
순천향대		3			11			38	49
승실대		2	4		13		3	150	166
이주대		2		6	16			145	161
연세대	1	4	8		37	2	24	35	99
연세대(원주)		2	8		5		12	30	47
영남대		3	7	1	29		6	51	86
울산대		3			21		12	25	58
원광대	1	3			25	1	8	14	48
이화여대	*1	3		1	28	2	4	644	678
인제대		2		1	17	1	4		21
인하대		1	3	4	21		6	70	97
전주대		3			15		7	18	40
조선대		3	4		13	2	16	29	60
중앙대	1	2	4		19		2	40	61
중앙대(제2)	1	2	4		12		4	50	66
청주대		2	4	10	14			46	73
포항공대	1	1	3		16		7	15	41
한국외대	1	2			18		3	30	51
한국외대(용인)		1			9		2	21	32
한남대		2	6		17	1	4	38	60
한림대		3	2	7	11		10	16	37
한성대		3	4		7	1	3	29	40
한신대		3			7		2	15	24
한양대	1	3	6		37	1	4	47	89
한양대(안산)	1	2	4		21	1	3	40	64
호서대		2	2	4	6		2	30	38
홍익대		3		6	21	1	1	66	89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허다하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시설투자 등에는 교육부의 '대학평가'를 의식하여 과감하게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인건비'의 증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사서직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⁸⁾ 그리하여 사서의 업무가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한 도서관이 다수인 실정이다. 심지어 어떤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의 인력난을 600명 이상의 학생보조원으로 충원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봉사대상자수와 장서수의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기존의 연구⁹⁾와 제반 법령¹⁰⁾에서 제시하는 기준(최저기준)에 부합되거나 초과하고 있다. 이는 근자에 들어와서 각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의 증가현상으로 인하여 장서수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전국 사립대학도서관 예산현황에서는 자료구입비만 연간 10억원이 넘는 도서관이 23개대학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국고보조금을 합산할 경우에는 40여개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예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자료구입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¹¹⁾와 교육부의 대학도서관운영개선방안¹²⁾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사서직수의 기준 등의 문제보다 예산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의 1995년도 자료구입비현황¹³⁾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 예산이 대폭 증가된 도서관이 허다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해당대학이 의식적으로 그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이같은 현상은 국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공무원 정원동결'의 영향으로 국립대학도서관에서도 사서직을 전혀 증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9) 李炳穆, 大學圖書館基準의 理論과 實際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85), pp. 113-134.

10) 上揭書, p. 116. 參照.

11) 上揭書, pp. 140-155. 參照.

12) 文教部 大學教育局, 教育正常化에 따른 大學圖書館運營改善方案(1985), p. 15.

13)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1995). 參考.

위와 같은 현황에 관하여, 사립대학교도서관 여러 직제 중 현재시점에서 주목할만한 상황인 부관장제 및 직제 혁신 도서관의 현황에만 국한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서직 부관장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 등록된 63개교 도서관을 조사해 본 결과, 부관장급의 직제를 부여하고 있는 기관이 무려 22개 대학 27개 도서관에 이르고 있다. 이는 63개교 75개 도서관 중 3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관장급 직제를 설치한 대학에서 지칭한 명칭은 각 대학의 직제 사정에 따라서 ① 부관장 ② 차장 ③ 사서장 ④ 사무국장 ⑤ 사서부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⁵⁾

14) '부관장급'이라는 용어는 직제상 과장 상위의 직급을 지칭하며,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의하면 '3급'에 해당함.

전국의 사립대학교도서관에서 부관장(급)제를 신설한 연유와 그 시기론 각각 상세하게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마땅하나, 건국대학교 등에서 초기에 이 제도를 마련할 당시에는 대학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고참사서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소위 '爲人設官'의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오랜 직무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관의 대외업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많았다고 한다. 이 제도가 설치되고 도서관의 업무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차츰 부관장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으며, 근자에 도서관자동화 및 교수겸임관장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특히 '사서직 부관장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5)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관장제의 명칭은 다양한 듯하다. 즉 東京大學附屬圖書館과 亞細亞大學(亞細亞大學短期大學部)圖書館의 경우 부관장 직급에 해당하는 '事務部長'제가 각각 있으며, 慶應義塾大學의 경우에도 '事務長'제가 있음.

〈표 2〉 부관장급 직제 실시 도서관

구 분	대 학 명	도서관수
부관장	건국대, 건국대(충주), 경남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선문대, 연세대(/차장),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중앙대(안성)	13
사서장	고려대, 단국대, 단국대(천안), 덕성여대, 성균관대, 성균관대(수원), 성신여대, 포항공대, 한국외국어대	9
사무국장	경희대, 경희대(수원)	2
사무부장	한양대, 한양대(안산), 세종대	3
	합 계	27

그밖에 필자의 각 대학도서관 방문조사에 의하면, 한남대의 경우에는 '부관장제의 신설문제가 교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의되었고, 이제 재단이사회의 승인단계만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남대·계명대·관동대·이주대·울산대·전주대·호남대·한남대'로 이루어진 "한국지역대학협의회"의 '도서관분과위원회'에서는 '부관장제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공동건의서>로 채택하여 이를 추진하려고 기획중에 있다'고 한다. 그밖의 많은 대학도서관의 과장급 책임사서들은 부관장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면서, 이 직제의 신설을 대학당국에 건의중에 있거나 타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과거 부관장제를 실시하였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공식중인 몇몇 도서관¹⁶⁾에서는 과장 중 유능한 인사를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부관장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아무튼 부관장제에 관한 직위명칭 문제에 상관없이, 이른바 '사서직 부관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학교 설

16) 〈표 1〉의 부관장란에 *표시된 한 도서관 참조.

몇몇 도서관에서는 고참과장을 위하여 사서장의 직제를 도입하였다가, 해당 직원의 퇴임후에는 이 직급에 신입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관장 또는 사서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과장 경력이 오랜 직원에게 부장대리의 직책을 추가로 부여하는 대학도 있었다(한양대가 그 대표적인 예임).

령>에 부관장 직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서직 부관장제의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¹⁷⁾ 반면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경영을 위하여 도서관장 및 책임급사서와 실무사서들의 의지가 강력하고, 이에 대하여 대학당국과 재단이사회의 이해만 수반 되면 사서직 부관장제의 설치가 즉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서직 부관장제의 설치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사립대학도서관은 해당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술정보유통의 총책기관으로서 급증하는 예산과 업무기능 등의 규모로 볼 때, 전임전문경영자(專任專門經營者)가 도서관장에 취임하여 대학도서관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¹⁸⁾ 그러나 <한국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기준(조문 2. 2. 1)에서도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능력을 지닌 관장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전국사립대학에서는 교수겸임 도서관장 보직임명이 관례화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⁹⁾

교수겸임 도서관장제는, 1) 급변하는 대학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영

17)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부산대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부관장을 역임한 바 있고, 전남대의 경우 현재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부관장직에 재직중 이다.

국공립대학도서관에서는, 3급 사서직 인사를 임용하여 도서관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1996년 2월에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국공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서”에 부관장급 직제의 신설을 위한 ‘도서관기획관’ 제도를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에 삽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18) 현재 문헌정보학자가 있는 일부 사립대학 등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도서관장을 겸임하는 예가 다수 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전공의 교수가 도서관장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원활하겠지만, 급변하게 성장·변화하는 도서관업무에 모든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전문경영자로서 도서관을 탁월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9)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도 교수겸임관장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첫째, 미국의 경우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사서직의 교수신분에 관한 문제는 1974년 이래 논쟁의 주제로 지속되어 왔다(Emily Werll and Laura Sullivan,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a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ollege & Reserch Libraries*, Vol. 48, No. 2(March 1987), pp.95-103.).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사서직이 교수신분(library faculty)이며, 더구나 대

능력의 부족, 2) 도서관업무와 교수직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니고 있고, 3) 2년 이하의 짧은 보직기간²⁰⁾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의 단절 및 시간적인 제약 등, 도서관경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도서관업무 전반을 지속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문사서를 부관장급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사서직 부관장제’를 설치하는 경향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서직 부관장제의 설치는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혁신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직제 중의 하나이다.²¹⁾

학도서관장은 圖書館教授陳의 一員(美國圖書館協會 大學 및 研究圖書館部會 制定, “美國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수록처: 李炳穆, 大學圖書館의 理論과 實際 (서울: 九美貿易, 1985), pp. 294-308. 參考))인 상황이다. 둘째, 중국의 대학도서관장은, “(1)교수 혹은 부교수로서 도서관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교수 혹은 부교수로서 도서관 업무 경험 2년 이상인 자”(中國圖書館學會 制定, “中國 大學圖書館 基準,”(수록처: 李炳穆, 大學圖書館의 理論과 實際, p. 270.)로 그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사립대학도서관장은, “館長은 專任者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館長이 兼任者인 경우에는 반드시 副館長을 두어야 한다”(日本私立大學協會, “日本 私立大學圖書館運營要項,”(수록처: 李炳穆, 大學圖書館의 理論과 實際, pp. 242-243.)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 각 도서관의 방문조사시에 해당 도서관 도서관장의 일기를 각각 문의하여 보았다. 개개의 사립대학에서는 소위 ‘보직순환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도서관장도 단임(2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연임하는 경우는 드문 형편이었음.

국·공립대학도서관장의 임기문제는 사립대학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극한적인 예로써,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도서관장의 교체비율은 연평균 49.7%로써, 1년 동안에 국립대학도서관장의 절반이 교체되고 있음(최정태,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직제개편을 위한 시안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4집(1996), pp. 8-9.)을 파악할 수 있다.

21)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 및 연구소 도서관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Hoadley와 Corbin이 공동으로 제시한 ‘도서관을 위한 혁신적인 조직구조의 모델’에서도 그 조직도에 부관장제(associate director)가 명시(明示)되어 있음(Irene B. Hoadley and John Corbin, “Up the beanstalk: An evolutionary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libraries,” *American Libraries*, Vol. 21, No. 7(July/August 1990), p. 677. 참조).

실제로 사서직 부관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다수를 방문면담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서직 부관장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운영 및 정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특정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장의 임기가 2년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신임 기관장(도서관장)이 임명되어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내 기관장 보직개편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가 단절되고 만다는 것이다. 사서직 부관장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에는 이같은 ‘기관장의 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부관장의 주도하에 해당 전문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일관성과 관련하여 ‘특정업무에 관한 도서관의 예산과 인력의 투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각종업무의 개발에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둘째, ‘대의협력업무의 강화’를 들었다. 도서관예산의 확보문제와 인사문제 및 대외섭외 등에 있어서, 과장급²²⁾의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부관장급의 직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원활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셋째, ‘관내 업무추진의 획기적인 강화’를 들었다. 종래에 ‘특히 신입관장이 부임하고, 2-4개 부서의 각 과의 과장(계장 포함)간에 상호 의사소통이나 업무협력이 원만하지 못했을 경우, 관내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어오던 사례가 가끔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관장제의 도입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통제와 견인이 가능해짐으로써 업무추진상의 혼선은 일거에 종식됨과 동시에 관내 업무추진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사서의 권익 및 지위향상으로 인한 사기(士氣)진작으로 전문업무에 대한 사명감의 고취’를 들었다. 이는 전국 사립대학에서 사서직이 기술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태반(太半)이어서, 종래에는 사서의 승진한계가 과장급으로 제한되었던 사항이다. ‘부관장제가 도입된 이후에, 사서직이 이보다 한 단계

22) 예전대 공무원 직급의 4급에 해당하는 사서참사.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²³⁾으로써 사서의 권익과 지위가 한층 더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서직의 사기가 진작됨과 아울러 사서직 전문업무에 대한 사명감도 가일층 고취됨과 동시에 도서관의 업무분위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부관장제의 설치로 말미암아 종래 고질적인 '인사적체 현상도 다소 해소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무엇보다 사서직 부관장제가 설치되면서 '등용된 부관장의 노력으로 교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위의 실무 사서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지적하는 도서관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신임 사서직 부관장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위상정립의 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관장급 직제를 조사하는 도중, 극소수의 대학도서관은 부관장급 직제에 사서직이 아닌 비전문직자가 임명된 사례가 있었다. 비전문직 부관장의 재직 시에는, 도서관 전문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반업무의 의사결정에 있어 지연·단절현상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며, 또한 부관장의 고유 의무와 책임에 따른 역할의 미숙한 수행 및 권한의 남용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도서관 전체의 업무분위를 해칠 우려도 있다.²⁴⁾ 따라서 차후 부관장제를 도입하려는 대학에서는, 개정되는 인사규정의 '직제' 사항에 반드시 "부관장(또는 사서장 등)은 1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明文化)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서직 부관장제'는 도서관업무 전반을 지속적으로 총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예산의 확보문제 및 인사문제 등 대외협력업무의 강화 측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사서를 임명하였을 때 비로소

23) 현재 사립대에서 일반직은 사무처장 등(공무원 직급기준 2급)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기술직으로 분류된 사서직은 여전히 2급 승진의 기회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24) 이같은 사항은 사서직 부관장이 고유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역할수행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일 수도 있다.

맡은 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위와 같은 사서직 부관장제는 대학도서관의 업무활성화 및 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간주되는 바이다.

2. 직제 혁신 도서관의 현황과 분석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사립대학교도서관의 조직규모 중 3개과 이상의 부서(部署)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표 3>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3개과 이상의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32개 도서관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는 아직도 사서과(수서·정리과 포함)와 열람과의 2개 부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전국의 사립대학교도서관이, 1950년대 이후 근자에 이르기까지, 2-3개과의 체제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은 수작업 중심의 분업화된 업무체제 환경하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도서관자동화의 완료단계 시점에 와 있고, 종래의 도서관에서 수행되어 왔던 수작업 전문업무의 분업화 현상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된 도서관에서는 네트워크에 의한 제반업무의 분산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조직체제 및 기능 그리고 각 부서의 명칭을 종래대로 유지하는 것은 업무추진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덕여대·이화여대·전주대·한성대·한양대·한양대 안산캠퍼스 등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자동화와 관련하여 각

25)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요업무가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대외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비공식석상에서 의사소통이 의외로 원활하게 진전되어 해결한 사항을 에피소드처럼 말해주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같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남성사서가 부관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 이는 결국 부관장의 대외직무 수행상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출중한 인사가 동용되었을 때 비로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3〉 3개과 이상의 부서설치 대학도서관 현황

대 학 명	부 서 설 치 내 용	과(실)	도서관수
건국대	수서정리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3	1
경남대, 경성대, 경원대, 단국대, 원광대, 조선대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3	6
경희대, 경희대(수원), 세종대	사서과, 열람과, 참고열람과	3	3
고려대	정리과, 열람과, 대학원도서과, 과학도서과, 개발관리실	4(1)	1
동아대	수서과, 정리과, 열람1과, 열람2과, 의대도서 분관	5	1
명지대, 홍익대	수서과, 열람과, 도서과	3	2
상명대, 상명대(천안)	사서과, 열람과, 시청각교육과	3	2
선문대	도서과, 열람과, 천안열람과	3	1
순천향대	수서과, 열람과, 분관	3	1
한신대	사서과, 열람과, 신학대학원도서과	3	1
연세대	관리운영과, 사서과, 열람과, 전산과	4	1
한양대	정보자료과, 정보봉사과, 의학도서분관	3	1
울산대	수서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3	1
이화여대	정보처리과, 정보자원개발과, 정보봉사과, 전산실	3(1)	1
인제대	수서과, 열람과, 정보처리실	2(1)	1
단국대(울곡)	수서정리과, 열람과, 의학분실도서과	3	1
대구대	수서과, 열람과, 대구분관	3	1
동덕여대	정보정리과, 정보봉사과, 여성학도서관	3	1
영남대	수서과, 열람과, 과학도서관열람과, 의학도서관	4	1
인하대	사서과, 정리과, 열람과	3	1
전주대	정보수집과, 정보운영과, 정보자료과	3	1
한림대	수서과, 열람과, 교육매체과	3	1
한성대	정보자료과, 정보봉사과, 전자정보과	3	1
합	계	32	

각 부서의 명칭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또한 고려대·상명대·연세대·인제대·한림대 등의 11개 도서관에서는 자동화된 도서관과 관련한 새로운 과(실)를 신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25개 대학도서관²⁶⁾에서도 자동화와 관련한 계(또는 실)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의거하여 보면, 상술한 11개 사립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자동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그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에서 또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연세대도서관의 경우 ‘관리운영과²⁷⁾’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구입비 예산이 7억원이 넘는 도서관²⁸⁾이 40여개 대학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부분의 사립대학도서관에서는 자료구입비 이외의 ‘도서관 자체예산’의 확보에 등한시하거나 제한받고 있다²⁹⁾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세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조직에서 별도의 ‘관리운영과’를 설치한 이후에 도서관의 각 과별 업무조정과 대외협력업무 등을 획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 26) 경성대(정보처리실)·경희대(교육지원센터)·경희대 수원캠퍼스(전산시스템실)·계명대(전산실)·광운대(전산개발실)·국민대(전자도서관)·단국대(시스템실)·덕성여대(미디어센터)·동국대(문헌정보계)·배재대(정보자료과, 정보열람과)·부산여대(정보처리계)·부산외대(도서관전산팀, 정보처리실)·삼육대(전산계)·서강대(전산실)·서원대(음영계)·선문대(전산실)·성균관대(도서관전산위원회)·수원대(전산화추진위원회)·연세대 원주캠퍼스(정보지원과)·영남대(전산실)·청주대(전산실)·포항공대(정보전산계)·한남대(전산계)·호서대(첨단실)·홍익대(전산실).
- 27) 연세대도서관의 관리운영과는, 60년대말 ‘관리과’로 신설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1972년 대학조직개편시에 ‘관리과’로 승격되었다. 그후 1993년에 ‘관리과’의 고유업무에 대외협력업무와 기획업무 등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관리운영과’로 개칭됨과 동시에 그 기능이 확장되었음.
- 28) 국고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10억원을 상회하는 도서관.
- 29) 현재 많은 대학에서 자료구입비 이외의 독립된 도서관자체예산을 배정하는 대학이 크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도서관자체예산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도서관의 책임경영자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경우 도서관 최고경영자 등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도서관 운영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표 4) 전국 사립대학도서관의 봉사대상자·장서수·자료구입비 현황

대 학	봉사대상자수			장서수 (단위: 천권)	비도서 자 료	자료구입예산(단위: 천원)			합 계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학생			단행본구입비	경간본구입비	기 타	
가톨릭대	470	140	3,769	187,957	3,032	150,000	100,000	60,000	310,000
강남대	300	170	6,600	194,952	148	200,000	50,000	173,005	423,005
건국대	954	2,549	15,960	546,090	1,902	337,654	368,670	72,455	778,779
건국대(충주)	400	95	6,000	138,333	
경기대	467	807	9,480	202,365	3
경기대(금화)	107	382	2,200	115,558	1	.	.	중앙도서관	일괄집행
경남대	747	1,187	13,059	521,554	1,294	350,000	250,000	100,000	700,000
경성대	435	690	9,208	282,000		260,000	230,000		490,000
경원대	419	970	7,250	164,267	155	342,930	218,180	360,750	920,860
경희대	844	2,950	11,073	772,653	70,826	465,000	600,000	35,000	1,100,000
경희대(수원)	550	800	8,953	270,521	1,690	920,000	400,000	827,295	2,147,295
계명대	937	2,000	16,844	810,855	4,053	1,350,000	450,000	349,150	2,149,150
고려대	1,032	4,591	15,291	1,196,579	2,008	230,000	504,000	45,060	779,060
고려대(서창)	218	58	4,616	120,028	6	76,536	64,000	4,100	148,636
관동대	417	402	7,386	231,285		615,000	89,940	353,675	1,058,615
광운대	301	690	5,840	221,894	2,556	392,063	130,294	194,933	717,300
광주대	300	330	12,880	173,000		200,000	70,000	30,000	300,000
국민대	488	699	9,250	337,819	7	350,000	170,000	30,000	550,000
단국대	560	1,612	9,284	392,283		264,049	180,500	1,290	445,839
단국대(울곡)	1,378	578	10,244	250,546	5,371	244,770	241,480	21,691	507,941
대구대	725	826	13,817	438,592	130	750,000	350,000		1,100,000
효성카톨릭대	702	520	10,556	408,000	350	132,000	190,000	8,000	330,000
대전대	408	460	7,485	120,500	370	170,000	70,000		240,000
덕성여대	293	130	5,184	280,777	56,867	110,000	60,000	140,000	310,000
동국대	597	3,154	10,660	561,908	822	200,000	270,000	80,800	550,800
동국대(경주)	542	170	9,332	223,723	2	260,000	160,000	47,000	467,000
동덕여대	350	207	5,610	174,200	300	340,000	80,000		420,000
동아대	917	1,021	18,357	598,441		633,000	614,000	46,606	1,293,606
동의대	570	530	9,847	280,141	700	350,000	200,000	250,000	800,000
명지대	499	737	10,627	355,346	294	560,000	310,000	511,630	1,381,630
목원대	370	395	6,370	205,620	3,558	168,848	86,067	59,286	314,201
배재대	262	175	6,360	281,350	6,568	121,974	88,046	15,675	225,695
부산여대	322	137	6,326	202,088	2,346	245,000	105,000	170,086	520,086
부산외국어대	300	300	6,500	169,597		180,000	100,000	234,019	514,019
삼육대	147	216	2,320	141,322	10,693	200,000			200,000
상명대	272	393	4,113	201,122		140,000	80,000	5,000	225,000
상명대(천안)	250	200	3,500	86,768		178,000	44,000	5,000	227,000

대 학	봉사대상자수			강서수 (단위 : 천원)	비도서 자 료	자료구입 예산(단위 : 천원)			합 계
	교 직원	대학 원생	학부 학생			단행본구입비	경간물구입비	기 타	
서강대	431	2,326	6,576	422,163	42,606	374,250	254,566	7,600	636,416
서울여대	220	347	4,800	204,893	576	125,620	83,500	10,000	219,120
서원대	328	63	5,098	167,324	10,551	763,600	190,400		954,000
선문대	341	46	3,700	130,979	770	250,000	200,000	50,000	500,000
성결대	137	91	2,443	131,510	170	83,500	30,000	38,500	152,000
성균관대	472	2,208	8,045	501,050	10,627	630,000	100,000	318,138	1,048,138
성관관대(수원)	407	904	6,675	227,385	20,398				1,070,000
성신여대	334	668	7,128	361,498	1,801	414,400	146,600		516,000
세종대	322	461	4,784	354,413	432	450,000	600,000	50,000	1,100,000
수원대	340	503	7,680	272,786	100	400,000	170,000	34,980	604,980
숙명여대	880	1,333	7,570	442,657	258	307,400	320,020	265,480	829,900
순천향대	365	293	6,287	163,304	350	241,000	125,600	920,160	1,286,760
숭실대	440	500	8,000	45,477		235,456	200,000		435,456
아주대	427	578	7,012	485,387	11	737,000	300,000		1,037,000
연세대	2,500	6,000	23,000	1,030,382	29,203	650,000	740,000	110,000	1,500,000
연세대(원주)	203	90	3,774	149,872	1,202	100,000	50,000	11,200	161,200
영남대	1,083	1,500	19,398	758,334	4,589	1,104,610	755,990	270,377	2,130,977
울산대	821	919	10,419	516,894	2,300	200,000	210,000	265,995	675,995
원광대	1,157	1,436	22,163	628,038	1,849	637,745	366,580	5,675	1,010,000
이화여대	985	3,212	14,960	1,054,476	280,180				1,500,000
인제대	763	617	6,000	240,000	2,200	403,000	240,000	322,160	956,160
인하대	1,300	2,100	16,000	662,505		727,178	426,480	376,980	1,530,638
전주대			237, 298	230	267, 472	95,000		374,562	
조선대	1,052	1,512	18,299	644,602	2,252	400,000	580,000	270,000	1,250,000
중앙대	750	2,700	10,300	625,069	1,600	700,000	400,000	200,000	1,300,000
중앙대(체2)	420	74	8,228	174,398	70	373,660	160,140	179,488	713,288
청주대	639	580	10,405	459,732	109	310,000	230,000	11,250	511,250
포항공대	465	932	1,212	270,917	7,531	410,000	1,108,000	43,500	1,633,500
한국외대	700	1,800	13,000	387,313		500,000	350,000	50,000	900,000
한국외대(용인)	300	45	6,000	151,334		500,000	350,000	50,000	900,000
한남대	450	626	9,111	297,423	166	305,000	245,000		550,000
한림대	824	264	6,243	278,738	17,603	225,500	460,000	265,500	951,100
한성대	241	420	3,990	121,273	817	100,000	50,000	413,000	563,000
한신대	250	450	3,778	144,364	1,400				400,000
한양대	2,192	5,541	22,570	797,364	68,020	1,459,875	1,175,549	1,022,944	3,658,368
한양대(안산)	411	200	8,720	364,702	94,608	653,100	303,326	74,596	1,031,022
호서대	300	240	6,800	214,526	1,000	128,406	94,800	6,700	229,906
홍익대	855	2,071	14,448	847,056	835	700,000	335,520	438,235	1,473,755

도서관경영 전반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다른 사립대학도서관들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조직은 자료 및 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관리하여야 하는 직원수(사서수)도 증가되어야 하는 실정에서, '도서관의 일반운영비·임시직원 인건비·직원의 재수당(특근수당, 당직비 등)·복지후생비·제반 시설관리비·대의 섭외비 등'을 포함하는 독립된 도서관자체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각 과별 업무조정과 대외협력업무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같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중규모³⁰⁾ 이상의 대학도서관에서 조직을 개편할 시에는 관리업무와 대외협력업무 및 기획업무 등의 도서관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영과'를 반드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³¹⁾

전국 사립대학도서관 중 직제개편을 이미 시행하였거나 신설부서를 운영하자는 도서관 그리고 부서의 기능을 달리하는 도서관의 현황 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대학도서관 부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동화된 도서관에서 각 부서의 명칭을 새롭게 부여할 때 반드시 해당부서의 직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사서과' 또는 '수서·정리과'는 '정보처리과' '정보자료과' '정보정리과' '정보수집과' 중의 하나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열람과'의 경우에는 '정보봉사과' 또는 '정보열람과'로 개칭하고 있다. 또한

30) 예컨대, <표 4>에 나타나는 72개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평균액인 7억원 이상의 도서관, 또는 봉사대상학생수의 중위권인 8천명을 상회하는 도서관.

31) 왜냐하면, 대학도서관을 위한 혁신적인 조직구조의 모델을 제시한 Hoadley & Corbin의 논문에서도 '관리운영과'와 동일한 기능을 지닌 'administrative division'부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부서(과)의 기능은 예산을 포함한 건물·시설·인사·자동화 및 도서관 개발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음(Irene B. Hoadley and John Corbin, "Up the beanstalk: An evolutionary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libraries," *American Libraries*, Vol. 21, No. 7(July/August 1990), pp.677-678. 참조).

〈표 5〉 단위 부서의 신설 및 개편 도서관 현황

대학명	부서 개편·신설 내용	비 고
계명대		· 부서명칭 변경기회중, · '특수자료과' 신설예정
동덕여대	수서·정리과→정보정리과, 열람과→정보봉사과	
배제대	수서·정리과→정보자료과, 열람과→정보열람과	
서강대		기구개편 기획중
성균관대		직제개편 기획, 연구중
연세대	· 관리운영과 설치 운영중 · 전산과/전산개발계 운영중	· 운영계(추가 신설예정), · 참고열람계→서지조제공계(변경예정) · 전자자료계, 정기간행물계(2계 독립예정)
연세대 (원주)	· 도서관의 명칭→'문헌정보전산원', · 문헌정보전산원은 '사서과'와 '정보지원과'의 2과 조직으로 개편, · 교내 '전산실'→'정보계발계', '시스템운영계'로 편입 · 교내 '시청각실'→'매체교육계'로 편입 · 교내 '통신실'→'정보통신계'로 편입 · 사서과/정보검색계(신설), · 정보지원과/정보계발계, 시스템운영계, 매체교육계, 정보통신계의 체제로 운영중	· 도서관의 기능확대 · 도서관, 전산실, 통신실, 시청각 실을 대등한 개념으로 통합하며 '문헌정보전산원'으로 조직 개편
이화여대	· 수서·정리과→정보처리과, · 정보자원개발과(신설):전자도서관, DB구축 등의 업무 담당 · 열람과→정보봉사과	
전주대	· 수서과→정보수집과/도서관 및 행정, 정보관리업무 · 정리과→해체, · 열람과→신선 2과에 기능 분산 · 정보운영과(신설)/외국간행물, 한적실, 멀티미디어, 국내간행물, 시스템실, 학위논문(담당제) · 정보자료과(신설)/인문과학, 기록자료, 서양사, 사회과학, 어문학, 과학기술, 대출·반납(담당제)	· 각 실: 정보자료의 선정 업무, 정리업무, 정보봉사 업무 등 일괄수행 · 멀티미디어실: 장기적으로 과의 직제로 확대 예정
한남대	· 정보조사과/수서계, 정리계, 전산계 · 정보열람과/대출계, 참고계, 정간계	
한림대	교육매체과(신설)/교육자료제작실, TV스튜디오, 수업지원실, 영상자료실	
한성대	· 사서과→정보자료과/수서계, 정리계 · 열람과→정보봉사과/대출계, 연속간행물계 · 전자정보과(신설)/정보검색, 전자정보, 통신정보, 음영정보	· '전자정보관'은 전자정보과에서 운영중. 이는 도서관과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아님.
한양대	· 정보자료과/자료수집계, 자료정리계, 전산계 · 정보봉사과/정보교류계, 서지정보계, 연속간행물계	· 도서관 신축시 각 실별로 제반 업무의 일괄수행 체제로 조직 개편(예정)
한양대 (안산)	· 정보자료과/행정·자료수집계, 자료정리계 · 정보봉사과/정보교류계, 서지정보계	

도서관자동화 관련부서(예컨대 도서관 내의 전산실·전산과 등)는 ‘정보지원과’, ‘정보운영과’, ‘정보자원개발과’ 등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종래의 ‘수서·정리과’를 ‘정보처리과’로, ‘열람과’를 ‘정보봉사과’ 등으로 그 명칭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부서의 직능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자동화된 도서관에서의 새로운 직능을 대표하는 부서 즉 ‘각 과 명칭의 작명에 많은 고심을 하지만, 해당 과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작명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무튼 자동화된 도서관의 부서설정에 있어서의 각 과의 명칭은 그 직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각각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밖에 <표 5>에서의 각 대학도서관의 현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을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세대 원주캠퍼스 도서관의 경우에는 교내의 부속기관인 도서관·전산실·통신실·시청각실의 4개 부속기관을 대등한 개념으로 통합하여 ‘문헌정보전산원’이라는 확대된 하나의 단위기관으로 조직개편하였다. 동시에 도서관은 ‘사서과’로 편입하면서 종래의 수서계·정리계·열람계 이외에 ‘정보검색계’를 추가신설하였다. 그리고 전산실·통신실·시청각실을 신설되는 ‘정보지원과’ 산하의 각계 즉 ‘정보개발계’·‘시스템운영계’·‘매체교육계’·‘정보통신계’로 각각 편입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다시 말하여, 차후 대학의 규모가 커질 때에는 도서관의 조직도 성장·확대될 수 있는 이같은 2과체제의 문헌정보전산원은, 종래의 전산실·통신실·시청각실 등은 각각의 실명칭을 ‘...계’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문헌정보전산원 산하에서 종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문헌정보전산원의 정보지원과로 편입시킴으로써, 결국 대학도서관의 ‘정보봉사 기능의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양상으로 그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대학도서관(문헌정보전산원) 조직의 확대개편 현상은, 다른 대학도

서관에서도 각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서 도서관의 조직확대개편의 일환으로 몇몇 대학에서 기획중임을 필자의 각 대학도서관 방문면담조사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세대 원주캠퍼스 문헌정보전산원의 직제개편은 도서관 조직의 확대개편에 관한 모범적인 한 사례로 다른 대학도서관의 조직개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주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종래의 '수서과'는 '정보수집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서과의 기능 중 자료구매 및 행정 그리고 정보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자료선정의 기능은 개편된 '정보자료과'의 각 주제별 담당사서에게 이관시켰다. 종래의 '정리과'는 해체함과 동시에 열람과와 통합하여, 이들 부서의 사서들을 신설되는 '정보자료과'와 '정보운영과'로 분산·배치하였다. 신설된 정보운영과에서는, 외국(정기)간행물 담당, 국내(정기)간행물 담당, 한적실 담당, 멀티미디어 담당, 학위논문 담당, 시스템실 담당 등으로 각 사서들을 업무분장시키고 있다. 또한 신설된 정보자료과에서는 각 사서들을 인문과학·기독교자료 담당, 서양서 담당·사회과학 담당, 어문학 담당, 과학기술 담당, 대출·반납 담당 등으로 업무분장 하였다.³²⁾ 정보운영과와 정보자료과에 분산·배치된 사서들은 자신의 주제별 담당 업무 중에서 정보자료의 선정에서부터 자료의 정리 그리고 정보봉사(열람)업무까지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정보운영과는 정보자료의 형태별 구분에 의하여 각 실을 운영하고, 정보자료과는 정보자료(단행본)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 실을 운영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각 주제별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이 분산배치되는 현상은 비합리적인 듯하다.³³⁾ 부서설정에 있어서,

32) 전주대 도서관에서는 각 주제별정보봉사실의 체제를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강당을 한에받아 각각의 정보봉사실을 이전하였음.

33) 아마도 소수의 사서들이 각 주제별정보봉사실에서 단행본과 정간물 등 모든 정보자료를 한꺼번에 선정함과 동시에 정리업무 및 정보봉사(열람)업무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도체제의 봉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종합적인 주제를 취급하는 간행물이나 첨단미디어정보자료단 별도로 관리·봉사하고, 동일한 주제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그리고 미디어자료를 정보자료과의 특정한 실(담당)에서 한꺼번에 정보봉사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하다.

셋째, 계명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부서설정에서 각 과의 명칭은 종래와 같이 유지하면서 각 주제별자료실을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서명칭 변경을 구상중에 있다'고 한다. 주제별자료실의 직무내용은 전주대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계명대 도서관에서는 '향후 각 계를 해체하고, 그 대신 각 주제별자료실의 실책임 위주로 부서의 분화를 변경함과 동시에 각 실에서는 주제전문사서제를 도입하려고 기획중에 있다'고 한다.³⁴⁾ 이같은 직제개편에 있어서, '종래의 각 과의 명칭을 폐지하면서 다시 개편되는 각 과의 명칭작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교내의 타부서 행정조직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와 담당사서의 직급부여와 그 명칭의 문제도 아울러 고심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사서의 승진·승급에 있어서의 적체현상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승진·승급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직제의 변화에 따른 기존의 조직과의 균형유지 문제에 있어서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주대·계명대 도서관 등의 직제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색은, 종래 자료중심·행정중심의 도서관운영체제를 이용자중심체제로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열광적'이라 할 만큼 아주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교수와 대학원생·대학생을 막론하고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또는 전화로)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분명한 상대자인 해당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가

34) 계명대 동산도서관의 경우, 신속한 도서관의 각 층별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각 주제별 정보봉사실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첨단정보(디지털정보·정보검색 분야)봉사를 위한 시설과 기자재 및 전문사서의 활용방안도 구체화되어 있었음.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용자의 해당정보에 대한 문의나 요구에 대하여 담당 주제전문사서의 명확한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개선된 도서관의 정보봉사 형태에 대하여 놀라운 반응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사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봉사자세가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해당 주제전문사서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사서의 대폭적인 증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결국 특정 주제영역에 대한 사서의 완벽한 정보봉사를 위한 주제전문사서(특정주제 정보전문가)제의 양성이 시급함을 의미한다.³⁵⁾ 이같은 이용자중심의 도서관운영체제가 성공을 거듭으로써, 다음에 논술하는 한양대 등의 여러 도서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 파장은 계속적으로 많은 도서관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한양대 도서관의 경우, 정보자료과와 정보봉사과 등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1996년에 창간호로 발행한 도서관소식지의 제목을 “학술정보관”³⁶⁾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차후 신축되는 도서관의 조직개편과 아울러 도서관의 명칭도 이와 같이 변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³⁷⁾ 그밖에 현재 도서관의 공간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봉사의 형태를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도서관 신축시에는 도서관 조직을 개편하여 각 주제별 정보봉사실 체제로 업무를 일괄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다섯째, 한성대의 경우, 전자정보과를 신설하면서 최근에 이 과를 바탕으

35) 따라서 기존의 사서들은 자신이 전담하여 봉사하는 영역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향후 대학교육의 개혁에 따른 ‘복수전공제’는 사서의 해당 전담정보영역에 관한 지식의 심화가 가능함으로써 전담주제정보봉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리하여 주제전담사서는 각 주제분야의 연구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서지정보의 안내와 상담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주제의 교과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충실한 협조자가 되어야 하고, 전담주제분야의 모든 정보를 통정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36) 영문명은 “Academic Information Center”로 표기하고 있음.

37)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 창간호(1996년), p. 7.

로 “전자정보관”을 개관하였다.³⁸⁾ 각 도서관의 방문면담 도중 이 사항이 자주 화제(話題)의 대상이 되었다. 한성대 전자정보관의 개관은 많은 대학도서관에 신선한 충격과 자극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섯째, 한림대·이화여대를 비롯한 많은 도서관들이 이른바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관련한 정보봉사를 위하여, ‘멀티미디어실’·‘교육매체과’·‘매체교육계’·‘시지정보계’·‘정보미디어실’·‘교육지원매체센터’·‘마이크로자료실’·‘미디어센터’·‘음영자료실’·‘시청각실’·‘정보자원개발과’·‘마이크로포실’·‘원문복사서비스’·‘전자정보과’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시청각자료와 멀티미디어 관련정보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각 도서관의 실정(예산확보의 문제 등)과 당면한 정보봉사의 필요성에 따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성대의 경우와 같이, 하나 이상의 독립된 과를 설치하여 특정 과 산하의 각 실별로 구성하여 정보봉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일곱째, 여러 대학도서관의 방문면담중, 1) ‘도서관내의 조직기구(과)의 숫자를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예컨대, 정보봉사과(열람과)에서 그 산하에 각 ‘주제별 정보봉사실’ 또는 ‘주제별 분관화’를 설치·운영할 경우, 4-5개의 주제별 정보봉사실 단위로 하여 ‘정보봉사 1과’·‘정보봉사 2과’·‘정보봉사 3과’... 등으로 계속 그 기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2)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에서는 ‘관리운영과’ 또는 ‘기획관리과’를 기필코 설치하여, 그 산하에 도서관의 장·단기발전계획에

38) 전자정보관은 도서관과 별개의 기관이 아니고, 전자정보과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 한성대 전자정보관은 그 설립목적은, 1) 정보인프라 강화를 통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국내외 학술정보망의 구축강화를 통한 실시간정보(Real Time Information) 제공체제를 지향, 2) 미래형의 출판없는 강의실 모형의 실현적 구축, 3)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구성원들의 적응능력 제고에 두고 있다. 전자정보관의 실별구성을 살펴보면, 1) 전자정보검색실/INTERNET, CD-NET, PC통신망을 통한 국내외 학술정보검색, 2) 위성통신수신실, 3) 종합음향영상실, 4) V. O. D. 및 세미나실, 5) 서버룸 및 광이미지제작실, 6) 교육매체제작실, 7) 전자정보상담실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한 ‘기획실’과 대외협력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실’ 등의 운영에 대한 역설(力說)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3) 모든 사서들이 한성대의 전자정보관 개관에 자극받아, 디지털정보(digital library, 인터넷, 광화일, CD-NET 등) 관련부서(과)의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자동화부서(예컨대 전산실)와의 조화도 또한 그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4) 종래의 도서관에서 수서과장의 직제에 비전문직 직원의 임용이 도서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요소로 등장하였던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다.³⁹⁾ 자동화된 도서관에서는, 정보수집과(종래의 수서과)에서 정보자료의 구매를 담당하면서, 정보자료의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는 그 부서장직에는 반드시 전문사서직으로 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신, ‘구매의 실무에 요구되는 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하위직급에 회계전문가를 대학당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적으로 제시되었다.

여덟째, 방문면담중 ‘사서의 승진과 관련한 직급제도’가 종종 화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각 대학도서관의 과장 또는 실무사서들은 ‘현재의 직급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모두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자동화된 도서관에서의 사서승진의 문제는, 예컨대 ‘사서보, 2급사서, 1급사서, 선임사서(과장급), 책임사서(부관장급)’ 등의 순으로 직급을 정하고, 도서관내의 의사결정은 ‘선임사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주제전문사서제>를 설치하자는 방안이 토론이 가장 많았다.⁴⁰⁾ 또한 대학사서의 직급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사

39) 종래 대학도서관의 직제 중에서, 수서과장직을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다는 점이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하였다. 이는 행정위주의 사고(思考) 발상에서 비롯된 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개정되어야 할 국립학교 설치령에서는, 예컨대 “정보수집과(종래의 수서과)의 장은 전문사서직으로 보한다”라는 사항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40) 이 토론에서는, 과장의 보직수당은 예컨대 ‘1십만원’으로 한다면, 선임사서의 수당은 ‘2십만원’으로 하는 등으로 하며, 의사결정도 각 과장 1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선임사서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제한된 보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의 교수신분제”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주장 등에 힘입어,⁴¹⁾ 우리나라에서도 심도있는 학술정보의 봉사과 대학도서관의 연구·교육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사서의 교수신분부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사서의 질적 향상 및 대학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아홉째, 각 대학도서관 방문시 특이(特異)하게 인상적이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다. 바로 그것은 타전공 교수가 도서관장에 부임하면서 도서관의 업무에 눈뜨고, 그리고 대학도서관에 애착을 가지게 된 몇몇 도서관장들의 주장이다. 그 주장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교육·연구의 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위상이 격상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부속기관이 아닌 총장직속기관으로서, 그 기관장(도서관장)은 ‘학술정보 부총장’이어야 합니다.”라는 애정어린 충고였다.⁴²⁾

41) ①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작성, 李炳穆 옮김, “대학도서관을 위한 교수신분 지침,” 도서관 문화, Vol. 33, No. 1(1992. 1·2), pp. 31-32.

②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제정, 李炳穆 옮김, “대학사서를 위한 교수신분 기준,” 도서관 문화, Vol. 33, No. 6(1992. 11·12), pp. 37-39.

③ 韓柏完, “大學 圖書館의 이상과 현실,” 대학교육, 제65호(1993), p. 16.

④ 南台祐, “대학도서관 職制 및 職員の 專門性 확립,” 대학교육, 제65호(1993), p. 33. 등의 문헌 참조.

42) 이같은 충고는 필자에게 하나의 파격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부총장을 정점으로, 실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중앙도서관장과 부관장 각 1명, 정보도서관 발전위원회……’(한상완, “大學 圖書館의 이상과 현실,” 대학교육, 65호(1993), p. 15. 참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술정보부총장 직제하에 중앙도서관장을 배치하는 조직형태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위의 충고는 ‘중앙도서관장이 바로 학술정보부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도서관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서의 애로사항 - 예컨대 ‘사서 1명을 증원하려 해도 기획처장·사무처장 및 인사부서 실무자에게까지 통사정하다시피 매달려야 하는 현실에서 대학도서관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하소연에 가까운 체험담 - 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도 도서관장은 학술정보부총장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Ⅲ. 결 론

사립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구조 변화와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변모되어 가고 있는 대학의 변화양상과 호흡을 같이하여, 도서관의 조직도 혁신되지 않으면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자동화 물결은 그 업무처리의 변화와 정보의 봉사형태마저 변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조직과 직제를 선행적으로 혁신시킴으로써 인사(직원)·예산의 문제 및 도서관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의 관점에 주목하여 사립대학도서관의 직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꾀한 결과,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술한 사항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직 부관장제는 조사대상의 사립대학도서관 중 35% 이상이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서직 부관장제는 도서관업무 전반을 지속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업무의 강화측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향후 중규모 이상의 대학도서관에서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후 부관장제를 도입하려는 도서관에서는 대학의 인사규정에 반드시 “부관장직에는 1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임명한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이를 실시하였을 때 비로소 부관장의 맡은 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동화된 도서관(automated library)에서는, 그 업무처리의 방식이 종래 분업화된 수작업 중심에서 자동화로 인한 업무의 분산화 양상으로 옮겨간 실정이다. 이와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조직과 직제도 급격하게 혁신되고 있다. 그 변화양상에 대한 대학도서관 방문조사시에 현장 실무, 책임사서들과의 토론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부서의 신설 및 명칭변경 그리고 그 개편에 있어서는,

① ‘관리운영과(또는 ‘기획관리과’)'의 설치문제는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신설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신설 과의 산하에 도서관의 장·단기발전계획을 위한 ‘기획실’과 대외협력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실’ 및 도서관 시설관리와 일반운업을 위한 ‘운영관리실’ 등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② 종래의 수서과는 ‘정보수집과’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제반 정보자료의 구매업무 등을 관장한다.

③ 종래의 정리과와 열람과를 통폐합하면서 정보봉사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그 명칭은 ‘정보봉사 1과’·‘정보봉사 2과’·‘정보봉사 3과’...의 방식으로 정보봉사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 정보봉사의 각 과 산하에 각각 4-5개의 주제별정보봉사실을 운영한다. 각 주제별정보봉사실에서는 주제구분이 명확한 단행본·정기간행물·학위논문·첨단멀티미디어자료 등 해당 주제정보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정보자료의 선정·정리·정보봉사(이용자 봉사·인터넷 등의 정보검색업무 등 포함) 업무 등 해당주제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일괄전담하는 ‘주제전문사서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경우 주제전문사서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④ 종래 전산실·시청각실·통신실 등으로 명명되었던 각 실은, 연세대 원주캠퍼스 문헌정보전산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지원과(또는 정보자원개발과)’로 통합·신설하여, 하드웨어의 관리·통합DB구축·시청각자료의 관리·각종 네트워크(통신)의 관리 및 도서관자동화관련업무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담당하는 각 실(또는 계)을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⑤ 한성대 ‘전자정보관’에 자극받은 많은 도서관에서는, 관련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디지털정보과(또는 전자정보과)’를 신설하여 첨단정보봉사시스템을 기획·구축하고자 하는 실무사서의 바람이 었보였다.

2) 대학도서관장의 위상, 사서의 지위 및 대학도서관의 명칭문제가 있어서는,

①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격상시킴과 동시에 교육·연구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장은 ‘학술정보 부총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② 사서의 승진(또는 직급)에 관한 문제 및 ‘전문사서의 교수신분부여제도’는 차후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③ 대학도서관 조직의 개혁과 더불어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 대신에 ‘학술정보관’·‘문헌정보전산원’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변경하였거나 차후 명칭변경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밖에 ‘학술정보원’·‘학술정보센터’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위와 같은 대학도서관 직제의 문제를 비롯하여 도서관 및 각종 부서의 명칭변경 등의 제반 문제들은, 단위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회>나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및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등에서 그 총의를 수렴하여 통일된 단일안으로써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자가 본론에서 제기한 문제 등에 대하여, 각 사립대학도서관을 방문면담하며 느낀 소감은, 일선의 현장사서들이 상당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업무혁신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요컨대, 대학도서관의 자동화가 완료되는 단계인 1996년 현재, 대학도서관 직제에 ‘사서적 부관장제’의 설치가 일반화되고, 동시에 도서관자동화에 수반하는 ‘업무 분산화’에 따른 도서관조직의 일대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자동화된 도서관이 학술정보센터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조직이 조만간에 혁신되어 제기능을 발휘할 때, 다가오는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예견된다.

〈참 고 문 헌〉

- 국공립대학도서관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서.”(1992. 2.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자료).
-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國立大學圖書館報, 第13輯(1995). 광주: 全南大學校 出版部, 1995.
- 권성호. “대학도서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수록처: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 제연구소, 교육논총 제6권(1993), pp. 19-39).
- 南台祐. “대학도서관 職制 및 職員의 專門性 확립.” 대학교육, 제65호(1993. 10), pp. 29-34.
- 다가야마 마사야(高山正也) 編. 도서관·정보센터의 경영. 김경일·김용원 共譯.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4.
- 大韓民國現行法令彙. 法制處 編. 서울: 韓國法令編纂會.
-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작성. 李炳穆 옮김. “대학도서관을 위한 교수신분 지침.” 도서관문화, Vol. 33, No. 1('92. 1. 2), pp. 31-32.
-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제정. 李炳穆 옮김. “대학사서를 위한 교수신분 기준.” 도서관문화, Vol. 33, No. 6('92. 11. 12), pp. 37-39.
- 朴秀珍.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새로운 모형에 관한 연구. 광주: 1995. (碩士學位論文-全南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專攻科 文獻情報學專攻 1996)
- 釜山大學校圖書館. 第26次 國公立大學(校) 圖書館·情報學 學術세미나. 부산: 釜山大學校圖書館. 1996. 2. 9.-10.
- 손정표. 대학도서관의 직원. 자료.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1993(박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경영학전공 1994)
- 尹熙潤. 大學圖書館 組織構造의 變化要因에 관한 研究. 서울: 1994(博士學位論文-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圖書館學專攻 1994)
- 尹熙潤. “大學圖書館 組織構造의 改善模型研究.” 圖書館學, 第22輯(1992. 6), pp. 397-441.
- 李炳穆. 大學圖書館基準의 理論과 實際. 서울: 九美貿易出版部, 1985.
- 李炳穆 譯. “美國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 成果 評價를 中心으로.” 國會圖書館報, 第29卷 第25號 通卷223號('92. 10), pp. 59-80.
- 李和國. “대학도서관의 教育·研究 支援機能 강화.” 교육연구, 제65호(1993. 10), pp. 35-42.

-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건의서(안).”(1996. 4. 26.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주최,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총회에서 채택한 건의서 자료)
-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1996년도. 청주: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996.
-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1995년도.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1995.
- 崔錫斗. “大學도서관 電算化의 제문제.” 대학교육, 제65호(1993. 10), pp. 43-49.
- 최정태.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직제개편을 위한 시안연구.”(수록처:국립대학교서관보, 제14집(1996. 6), pp. 1-24.).
- 韓相完. “大學 圖書館의 이상과 현실.” 대학교육, 제65호(1993. 10), pp. 10-18.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 창간호(1996년).
- 홍현진. 도서관조직의 기술혁신 및 행정혁신에 관한 조직상황론적 연구. 서울: 1993(博士學位論文-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경영학전공 1993).
- Bakewell, K. G. B. *User-Centered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London : Mansell, 1990.
- Hoadley, Irene B. and Corbin, John. “Up the beanstalk : An evolutionary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libraries.” *American Libraries*, Vol. 21, No. 7(July/August 1990), pp. 676-678.
- Stueart, Robert D., Moran, Barbara B.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3.
- Werll, Emily and Sullivan, Laura.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an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College & Reserch Libraries*, Vol. 48, No. 2(March 1987), pp. 95-103.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University Library's Line and Staff Organization

Kim, Sung Soo*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ation and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library's line and staff organization especially the private university's.

Motivation f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 First, the library work now is changing from the conventional one to automated one. Second, librarians in the front line must be trained in the newly set work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work process in automated libraries.

Methodologies of this study, apart from theoretical aspects, were visiting and interviewing librarians at 30 university libraries,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ine and staff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libraries.

The result from the study is as follows :

First, interviewing reveals that 35% of the 75 private university library is having 'associate directorship by librarian' system. Benefits from this system are described, recommending othe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g-Ju University.

libraries adopt this system. This system supplements the weak point of concurrent director's office of lay professor, as well as encourages librarian's morale by promotion.

Second, the current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libraries are to be reformed.

Namely, 1) the name of each division must be newly and appropriately set of changed suiting for the work of automated library, thus reforming the division. This must be conducted via collection of opinions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and associated organizations.

2) Newly formed division(for example, administrative division or division of operation and management, division conducting digital library work, etc.) must be added to the line and staff organization.

3) For information service division, there must be a certain number of subject specialists.

4) Status of the directorship of university library, librarianship, issue of renaming of university library are also described.